



주간 제781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음력 3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현재, 8인 전원일치 결정...‘용기·신념’으로 수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통합·경제회복 매진”

관련기사 2·3·4·5·6·7·11·15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만행을 일으킨 지 122일,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는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신뢰를 저버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대응하며 파면되는 4개월 동안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호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국회로 모였던 국민들, 한겨울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도 ‘윤석열 구속’을 외쳤던 국민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이 있었다.

국민들의 염원을 읽은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으로 응답했다. 법치주의 실현으로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다. 더욱이 국가 지도자의 책임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처럼 어두웠던 ‘내란의 밤’이 가고 환한 ‘빛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 등 급박한 내수 부진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정치에서는 이제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국민통합은 물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장은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됐고, 의료 대란은 의료와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해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파면을 넘어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

회 대개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극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나라를 바로 세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통해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라”며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대로 지친 국민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호소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외교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제 우리는 분열됐던 국론을 다시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에 힘쓰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조속한 국정 정상화로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에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문제, 군 공항 통합 이전, 위니아 사태 등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며 “이제 분열과 분란을 조정하는 일은 지양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함께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회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기뻐하는 시민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승리대회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어올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정치권 대선모드 돌입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재명 9일·홍준표 8일께 대권 도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에 일제히 돌입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책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헌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선거일은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논의돼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4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

록 마감 이른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선 출마)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오는 8일께 시장직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5일 홍 시장을 향해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사과 반성하라”며 “대선에 임하시려면 국민께 먼저 정중히 사죄하시길 바란다. 그게 참 보수의 길”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오전 11시 민주당 당원실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신문의 날 휴일로 4월 8일자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1주|광주버스방송

월 8만원으로 버스에 광고가?!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1주|광주버스방송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